눈높이 맞추니 통했다…이젠 신행으로 연결을

4월 4~7일 열린 불교박람회
SNS 입소문 타고 '인산인해'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 인기
20명 모집에 337명 지원해
'MZ세대 취향 저격'이 요인

불교 진입장벽 낮춘 효과 커
유행서 메가 트렌드화 '숙제'
문화교육 통한 불자교육 개발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펼쳐진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EDM 공연은 2030세대에 큰 호평을 받았다.

신중일 · 이민우 기자

불교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고, 2030세대의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 신청이 쏟아졌다. MZ세대의 불교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4월 4~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030세대의 관심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불교박람회는 사전등록자가 4배,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전년대비 3배 증가했으며, 이 중 80%가 2030세대였다.

불교박람회 개막 당일부터 인스타그램·X(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이 점차 증가했으며, 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방문자도 전년대비 30배 증가하면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주말이었던 6~7일에는 개관 전부터 대기줄이 이어졌고, 폐관 직전까지 불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로 박람회장이 북적였다.

특히 이번 불교박람회에서는 청년세대의 고민에 주목하고,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처방법을 제안한 프로그램들이 큰 호평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청년리더 500인의 세대공감 토크쇼 '담마토크'는 현장관람객 만석을 기록했다.

개그맨 윤성호 씨가 '부캐'인 '뉴진 스님'으로 등장해 진행한 디제잉 쇼는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평가다. 또한 '자빠진 쥐' 공예품, '중생아 사랑해' 등 독특한 문구의 티셔츠 등도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주관한 불교신문사 사장 오심 스님은 "이번 박람회의 슬로건이 '재밌는 불교'였다. 앞선 박람회가 어른 세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MZ세대가 주인공이었고, 이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는 '최첨단' 종교다. 어느 시대에서도 그 시대에 맞는 사상과 문화 등과 어우러져 자신만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불교다.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박람회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주최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의 인기도 뜨겁다.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된 1, 2기는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 4월 6~7일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에서 진행된 3기의 인기도 높았다. 실제 3기 모집 당시 20명 모집에 총 337명이 지원해 16:1의 경쟁률을 보였다. 복지재단은 적절한 나이차, 간절함 등을 기준으로 3기를 선발했다는 후문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젊은 세대가 낯설다는 감정을 힘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절에서 만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흔치 않던 풍경이기에 그만큼 신기해하고 재밌어한다. 또한 템플스테이가 확산되면서 휴식과 소중한 만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는 절로'가 관심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교박람회와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의 흥행이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신행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넥스트 스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문화 체험 후 SNS에 체험기를 공유하는 것은 일종의 유행이다. 최근 유행은 빨라져 최소 6개월 단위로 바뀐다"면서 "불교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유행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불교에 대한 관심을 유행이 아닌 트렌드로, 나아가 메가-트렌드로 바꿔내야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문화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 MZ세대를 어떻게 충성신도(핵심신도)로 이끌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문턱을 낮춤으로써 불교에 호감을 갖게 된 MZ세대를 어떻게 '충성신도'화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찰을 꾸준히 방문할 수 있는 신행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문화에 관심이 큰 세대인 만큼 '문화교육'을 '불자교육'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심 스님은 "앞선 세대의 종교 신행은 '기브 앤 테이크', (기도비 등을) 내고 얻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신행은 '테이크 앤 기브'가 될 것이다.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주게 된다는 것"이라며 "불교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뤄지는 만큼, 젊은 세대가 불교 신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신행 프로그램 등도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절로, 전등사편' 첫날 저녁공양에서 1대1 데이트를 하게 된 선우 씨와 선화 씨(가명).

청춘남녀 20명, 인연 찾아 "나는 절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월 6~7일 '나는 절로 전등사편'

20명 모집에 총 337명 지원해
시작 전부터 인기와 관심 높아
참가자, 게임 · 사찰 데이트 하며
낯섦의 벽 허물고 새 인연 맺어

4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꽃가지를 흔드는 강화 전등사에 저마다의 소중한 인연을 꿈꾸는 청춘들이 찾아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주최하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전등사편'이 4월 6~7일 이틀간 강화 전등사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된 1기와 2기 모두 뜨거운 화제를 모은 가운데 3기인 '전등사편'에는 20명 모집에 총 337명이 지원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적절한 나이차, 간절함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30대 미혼남녀 20명이 참가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한국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재단이 젊은이들을 위해 만남의 장을 마련했으니 참가자들도 좋은 인연을 맺고 앞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인사했다.

입재식 후 참가자들은 1분간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훈' '보현' '은채' '지수' 등 자신이 선택한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체육교사, 소방관, 공무원, 치위생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부모님의 추천' '친구의 배우자의 소개' 'SNS' 등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위 또한 다양했다. '큰아들로서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기 위해' '절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등 지원동기도 밝힌 참가자들은 서로를 박수로 환영했다.

성훈 씨(가명, 32)는 "경쟁률이 높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나 자신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에게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도 준비됐다. 심목민 레크리에이션 전문 MC의 능숙한 진행 아래 참가자들은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연을 키워나갔다.

저녁공양은 1대1 데이트로 진행됐다. 여성 참가자들의 선택으로 이어진 한 쌍은 함께 공양을 하고 경내를 산책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여성 참가자의 선택을 받은 남성 참가자들은 모두 "선택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들뜬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영수 씨(가명, 34)는 "절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전문 레크리에이션 MC가 진행하니 수학여행 기분도 나고 재밌었다"며 "남은 시간 동안 (나를 선택한) 여성 참가자와 대화를 더 나누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든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 중 무려 4쌍의 커플이 맺어지는 높은 성사율을 보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나는 절로'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묘장 스님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방에서도 템플스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이민우 기자

